

'2026 세계섬박람회' 전남도·여수시 공동 개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돌산 진모지구·금오도·개도서 개최
200만명 방문·경제효과 2500억 예상
정부 승인 국제행사 목표 총력전

2012년 여수엑스포를 성공 개최한 여수시가 오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완성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섬과 교량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인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전남도와 함께 내년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오봉 시장과 전문가 자문위원,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용역 착수

이후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열어 보완 작업 및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 또 지난 5월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와 시민 설명회를 거친 결과물이다.

용역을 수행한 ㈜플래시랩 정순영 대표는 섬박람회 개최 배경과 의의, 여수 개최 당위성, 주제 선정, 목표 입장객 산출, 개최 기간 및 장소, 행사장 조성 및 전시관 연출, 행사 프로그램,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보고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한달간 돌산 진모지구를 주 행사장으로, 섬지역인 금오도와 개도를 부행사장으로 조성해 운영한다. 주제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이다.

주행사장은 주제관을 비롯해 3개의 부제관, 국가와 지자체 전시관인 공동관, 섬마켓관, 섬놀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제관은 바다에 띄워진 해상전시관 형태의 이벤트 구조물로 박람회 핵심 콘텐츠들이 담긴다.

방문객 수요조사 결과 목표 입장객은 200만 명, 입장권 판매 등 사업수입 100억원을 예상한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40억원이



여수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오봉 시장과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투입된다.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이상으로 타당성이 있고, 4000억원의 생산 효과, 약 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여수시는 앞으로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전남도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내년 중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화순 생물의약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 만든다

2022년까지 50억원 들여 조성
오염물질 감소·열섬현상 완화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된다.

화순군은 오는 2022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생물의약산단 주변에 5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단계별로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은 현재까지 14억원을 들여 1.4ha 부지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인 가시나무 등 40여종 915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엔 10억원을 투입해 1ha에 산림청이 권장하는 상록수종과 난대수종을 혼합하는 다기능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화순천 주변에 1ha를 추가 조성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 숲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

지 농도는 40.9%가량 낮다. 1ha 숲은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연간 168kg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도시 숲이 있는 지역은 한여름 평균 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는 9~23% 올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숲과 나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숲을 조성



화순 생물의약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감도.

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햇빛광양시티투어 야경 코스 7월부터 본격 운영

철저한 방역태세 속 관광객 맞이
특별여행주간 입장료 50% 할인

광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늦췄던 햇빛광양시티투어를 특별여행주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 구석구석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햇빛광양시티투어는 운행 전 차량 소독, 손 소독제 비치, 탑승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관광객을 맞는다.

이번에 운영되는 야경 코스는 오후 3시 순천역을 출발해 광양버스터미널, 중마관광안내소를 거쳐 구봉산전망대, 이순신대교 홍보관(전망대), 이순신대교먹거리타운, 해오름육교&무지개다리, 느랭이골 별빛축제 등을 차례로 투어하는 프로그램으

로 7~8월에만 운영된다.

투어 첫 코스인 구봉산전망대는 '2020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명소로, 낮에는 광양만·순천·여수산단·남해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밤에는 신비한 빛을 발하는 봉수대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찬란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거북선을 형상화한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는 철로 만든 하프를 불리는 수려한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시가지 등을 한눈에 조망한다.

해오름육교는 광양의 상징인 태양이 광양만 물결 위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형상으로 은은하고 감각적인 빛의 선율을 선사하며, 야경 투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휴식과 치유의 편백숲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에선 자연을 호흡하고 1430만개 빛의 향연에 빠진다.

특별여행주간 기념으로 7월 한 달간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해설사와 함께하는 퀴즈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햇빛광양시티투어는 평일은 10인 이상, 주말은 5인 이상 예약시 운행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군인·경로·학생 2000원, 장애인·미취학 아동 1000원이며, 관광지입장료와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국가어항 해남 어란진항 노후시설 대대적 정비

목포해수청 방파제 보강·물양장 조성 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30일부터 국가어항인 해남군 송지면 어란진항의 방파제 보강, 물양장 조성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어란진항은 1989년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선양장 등 기본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장기간 이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최근 물길 생산량이 크게 늘어 소요 접안시설 규모 대비 접안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목포해수청은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1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란진항 동방파제 125m와 동방파초안 144m를 보강하고, 인양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물양장 246m를 조성해 항내 혼잡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어구보관장고 3동도 신축한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어란진항 정비공사를 통해 수산업 기반 확보,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 국가어항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함평월야 여성자율방범대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



함평 월야 여성자율방범대가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됐다.

함평경찰청은 최근 월야 여성자율방범대에 '2020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월야 여성자율방범대는 생업을 마치고 매일 일과 후 범죠히약지 순찰 활동과 홀로노인·여성·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됐다.

박종열 함평경찰서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공동체 치안 활동의 동반자가 되어줘 감사하다"며 "함평경찰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와 지속적인 협력 치안으로 더 안전한 함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